

특집: 노랫말로 노래읽기

대중가요 가사의 품사별 빈도에 따른 특성 고찰*

한성우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 | | |
|-----------|------------|
| 1. 들어가는 말 | 6. 형용사 |
| 2. 명사 | 7. 관형사와 부사 |
| 3. 대명사 | 8. 감탄사 |
| 4. 수사 | 9. 종결어미 |
| 5. 동사 | 10. 맺는말 |

본고는 1920년대 이후 발표된 한국의 대중가요의 가사를 분석하여 품사별로 빈도가 높은 단어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26,000여 곡을 선정하여 정리한 후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해 대중가요 가사의 어휘를 품사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대중가요 가사의 고유한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 말뭉치와 비교하였다. 명사에서는 ‘사랑’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이별’과 ‘눈물’ 등도 상대적 높은 빈도를 보인다. 일반 말뭉치에서 ‘사랑’은 104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대중가요가 ‘사랑타령’이라는 통념을 방증해 준다. 대명사에서는 ‘나’와

* 이 글은 필자의 저서 『노래의 언어』(어크로스, 2018)에서 자료와 논의를 일부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품사별 빈도 순위를 비롯해 어휘와 어미의 통계 또한 이 책에서 발췌한 것이므로 출처를 따로 밝히지 않는다. 이 글은 대중가요 가사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결과 중 기초적인 빈도 통계만 활용하여 대중가요 가사의 대략적인 특징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인용과 참고 문헌은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너’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대중가요는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사랑 노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동사에서는 ‘사랑하다’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형용사에서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없다’나 ‘슬프다’ 등과 관련지어 보면 대중가요 속의 사랑은 ‘슬픈 사랑’이 주류임을 알 수 있다. 별도로 분석한 종결어미에서는 일반 말뭉치에서 많이 등장하는 ‘-다’보다 ‘-아/어’와 ‘-요’가 많이 등장한다. 이는 대중가요 가사의 구어적 특징을 잘 드러내 준다.

핵심어: 대중가요, 가사, 말뭉치, 품사, 사랑

1. 들어가는 말

‘아, 그 서울에 사랑이 없어 다시 나를 사랑한다’는 어색하기 짝이 없는 문장이다. 그러나 노랫말 속에 등장하는 단어를 품사별로 분류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말들을 엮어서 만들어본 제목이다. 대중가요 가사에는 왜 고유명사 ‘서울’과 감탄사 ‘안녕’이 많이 등장하는가? 명사 ‘사랑’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모자라 동사 ‘사랑하다’마저도 왜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인가? 어차피 노래는 부르는 사람의 노래, 즉 ‘나의 노래’일 텐데 왜 ‘나’가 끊임없이 등장하는가? ‘없다’가 ‘있다’를 누른 이유는 무엇이고, ‘다시’는 왜 잊을 만하면 다시 등장하는가?

대중가요의 가사를 여러 층위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가장 흥미로운 특성들을 드러내 주는 층위는 역시 어휘일 가능성이 크다. 음운과 문법 등의 여타 층위에서도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이런 층위에서의 논의는 다소 전문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흥미를 끌기가 어렵다.¹⁾ 이에

1) 음운 층위에서의 논의는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노랫말을 이루는 자음과 모음, 나아가 음절의 구성은 물론 각 요소들의 연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단순 통계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운 층위의 분석에서

비해 어휘는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고,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한국어는 물론 가사 속에 담긴 한국 문화까지 이해가 가능하다. 대중가요 가사 자체만 분석하는 것도의의가 있겠으나 비교 대상을 두고 분석했을 때 그 특성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다. 대중가요의 가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어 자료와 다른 특성이 있을지라도 한국어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한국어 자료와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 한국어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의 현대 대중가요에 나타난 어휘의 품사별 빈도를 바탕으로 그 특성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어휘는 다양한 분류 기준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누구나 상식적인 접근이 가능한 품사를 기준으로 어휘를 분류하여 이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개별 어휘의 출현 빈도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동시에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품사별로 나누어 각 부류별로 단어의 출현빈도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시도해 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그런데 대중가요 가사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코퍼스와 대중가요의 가사를 비교, 대조하여 가사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들을 서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현대 대중가요는 1923년 이후 2016년 말까지 발표된 26,000여 곡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최초의 대중가요가 발표되고 난 이후의 모든 곡에 대한 자료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에 따라 노래를 선정하고 그 가사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작업 또한 매우 난해한

특별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근래 유행하는 랩을 대상으로는 운율이나 각운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를 위해서는 가사를 보다 정제된 형식으로 정리하고 태깅 작업도 필요하다. 문법 층위의 분석 또한 가능하나 이 작업 역시 가사의 정제를 전제로 한다.

작업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로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꽤나 정확한 가사가 담겨 있는 노래방 업체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취한다.²⁾ 대중가요의 가사의 특성을 밝히기 위한 대조 자료로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세종계획의 일환으로 구축한 말뭉치를 사용한다.³⁾

한국어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9개의 품사를 인정한다. 이 모든 품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대중가요 가사 분석에서 큰 의미를 찾기 어려운 품사도 있다. 따라서 이 중에서 분석 결과 유의미한 품사만 대상을 선별해 차례대로 빈도와 그 특징을 살펴본다. 어미는 별도의 품사로 설정되지는 않지만 대중가요 가사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매우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어미도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해 서술한다.

2. 명사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인 명사는 대중가요 가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또한 대중가요의 성격을 결정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명사이기도 하다. 명사는 일반명사와 고유명사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나는 일반명사의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2) 이 글에서는 2016년 11월 당시 TJ communication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는 노래의 가사를 내려받아 정리하고 분석한다. 당시 5만여 곡이 탑재되어 있었는데 이를 내려받아 외국곡을 제외하고 중복되는 것을 재정리하여 26,00여 곡을 대상으로 삼았다. 노래방 업체에서 제공하는 목록의 특성상 70년대 이전의 노래가 적어 유성기 음반 가사집 및 세광출판사의 〈한국가요전집〉 5권 등의 자료를 확보해 보충하였다.

3) 이 글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를 활용해 대중가요를 일상적인 한국어 자료 전체와 비교 대조한다. 이 말뭉치에 대한 기초 정보 및 이용 방법은 <https://ithub.korean.go.kr/user/guide/corpus/guide1.do> 참조.

순위	제목	가사	말뭉치
1	사랑	사랑	사람
2	사람	마음	때
3	이별	말	말
4	눈물	사람	일
5	여자	눈물	문제
6	남자	때	속
7	날	이제	경우
8	말	날	사회
9	밤	속	자신
10	노래	가슴	정부
		
104	소년	어둠	사랑

〈표 1〉 일반명사의 빈도 순위

한국 대중가요의 특성은 흔히 ‘사랑타령’이란 말로 대변되는데 명사의 통계가 이를 잘 뒷받침해 준다. 말뭉치에서 ‘사랑’은 명사 순위에서 104위로서 한참 뒤에 나타난다. 그러나 대중가요의 제목과 가사에서 모두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말뭉치에서 1위인 ‘사람’은 대중가요의 제목에서는 2위, 가사에서는 4위로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래가 결국 ‘사람의 사랑 이야기’임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제목에 ‘남자’와 ‘여자’가 많이 나타나는 것 또한 ‘사람’과 관련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남자’와 ‘여자’인 것이다. 흔히 동성 사이의 감정을 나타내는 ‘우정’은 제목과 가사에서 각각 311위와 430위를 보이고 있다. ‘우정’이 이처럼 낮은 순위를 보이는 것 또한 한국의 대중가요가 ‘사랑타령’임을 방증하고 있다.⁴⁾

대중가요의 제목과 가사에서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는 ‘이별’과 ‘눈물’이 눈에 띈다. 이 두 단어는 일상에서 그리 많이 쓰이지 않는데 대중가

4) 대중가요 가사에서 ‘우정’은 ‘사랑’에 비해 극히 낮은 빈도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가사 내용이나 노래의 분위기 또한 우호적이지 않다. ‘우정’이 제목 전면에 나오는 〈흔들린 우정〉(김창환 작사, 홍경민 노래, 2000)이나 〈우정, 그 씩씩함에 대하여〉(십센치 작사, 십센치 노래, 2011)이 ‘우정’에 대한 대중가요의 대접을 대변해 준다.

요에서는 유난히 많이 등장한다. 결국 한국의 대중가요에서 ‘사랑’을 많이 노래하지만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의 사랑이 아니라 이별 후 눈물을 짓는 사랑인 것이다. 사랑에 빠진 이들은 정작 노래를 듣지 않지만 사랑을 그리워하거나 사랑을 잃고 눈물짓는 이들이 노래를 듣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랑의 이러한 속성은 이 노래가 잘 대변해 준다.

사랑이 무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이별이 무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할 테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남국인 작사, 나훈아 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 1979

고유명사 중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는 부류는 지명이다. 고유명사라 하면 인명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특정인을 가리키는 인명은 대중가요 가사나 말뭉치 모두에서 높은 빈도를 보일 수 없다. 따라서 지명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 말뭉치와 비교해 보면 대중가요의 고유명사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순위	제목	가사	말뭉치
1	서울	서울	한국
2	부산	대한민국	미국
3	평양	부산	일본
4	순이	한국	서울
5	여수	코리아	북한
6	신데렐라	한강	김

7	목포	순이	중국
8	대한민국	강남	조선
9	강남	동해	러시아
10	한강	마징가	프랑스

〈표 2〉 고유명사의 빈도 순위

대중가요 가사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공식적인 국호이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을 줄인 ‘한국’이 더 많이 쓰인다. 그리고 ‘한국’은 말뭉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고유명사이다. 그런데 대중가요 가사에서는 ‘한국’은 순위가 뒤로 밀리고 ‘서울’이 가장 앞자리를 차지한다. 말뭉치에는 신문기사, 뉴스, 교과서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한국’이 많이 등장한다. 그러나 노래에서 ‘대한민국’이든 ‘한국’이든 ‘나의 조국’이 등장할 이유는 없다. 응원구호로 ‘대한민국’이 등장하고 월드컵 때 〈오 필승 코리아〉가 만들어져 ‘대한민국’과 ‘코리아’가 가사에서 높은 순위를 보였지만 이는 모두 특별한 경우이다.

대중가요 가사에서 ‘한국’ 대신 ‘서울’이 1등을 차지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서울’ 자체가 지명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수도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심지어는 동요 〈오빠 생각〉에서 누이의 비단구두를 사기 위해 가는 곳이기도 하다. 이른 시기에 ‘아름다운 서울에서 서울에서 살립니다’(길옥윤 작사, 패티 김 노래 〈서울의 찬가〉 1969)와 같이 서울을 그린 것도 있지만 서울을 가장 많이 등장시킨 노래는 바로 이 노래다.

서울 서울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
 서울 서울 서울 그리움이 남는 곳
 서울 서울 서울 사랑으로 남으리

워 워 워 Never forget oh my lover Seoul

양인자 작사, 조용필 노래, 〈서울 서울 서울〉, 1988

3. 대명사

대중가요 가사를 형태소 분석한 후 모든 형태소별로 빈도를 산출해 보았을 때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1인칭 대명사 ‘나’이고 다섯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2인칭 대명사 ‘너’이다. 이 두 대명사를 제외하고 상위권에 있는 형태소들은 모두 어미와 조사라는 점에서 이 두 대명사의 빈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1인칭 대명사 ‘나’는 말뭉치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대중가요 가사에서나 말뭉치에서나 모두 ‘나’가 문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노래는 일차적으로 ‘나의 노래’라고 표현할 수 있다.

순위	제목	가사	말뭉치
1	나	나	나
2	너	너	그
3	그대	그대	우리
4	우리	내	이
5	당신	우리	그것

〈표 3〉 대명사의 빈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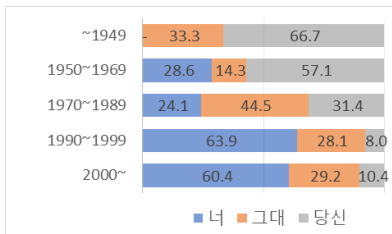
대중가요 가사를 1인칭이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가 나타나는 횟수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어에서 ‘나’는 다른 모습으로 많이 나타난다. ‘내가, 내, 내게’ 등이 그것이다. 주어 ‘내가’만으로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데 이것만으로 제목을 삼은 노래도 있다(〈내가〉, 김학래 작사, 김학래/임철우 노래, 1979). ‘내가’는 제목에서는 173회가, 가사에서는 23,864번이나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것까지 모두 보태면 1인칭

의 출현 횟수는 훨씬 더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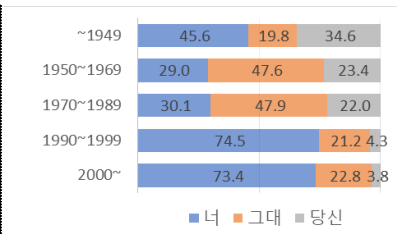
하지만 굳이 ‘내’로 바뀐 것까지 찾아볼 필요도 없다. ‘나’가 가사에 한 번이라도 등장한 노래만도 23,704곡이니 분석 대상이 된 2600여 곡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문장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육하원칙에서의 ‘누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래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것이니 이 ‘누가’의 자리에 ‘나’와 ‘내’ 등의 1인칭이 들어가는 것이다.

2인칭 ‘너’가 1인칭 ‘나’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2인칭 대명사는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는다. 과거에는 ‘그대’와 ‘당신’이 2인칭을 표현했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너’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노랫말의 현실성으로 먼저 해석할 수 있다. 즉 현실 언어에서 잘 쓰지 않는 ‘그대’와 ‘당신’ 대신 ‘너’를 보다 적극적으로 쓰려는 시도가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면에서는 노래가 점차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는 것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노래 가사 속의 ‘나’와 ‘너’가 적당히 나이가 든 사람들이라면 서로가 ‘너’라 부르지 못하지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가 자연스럽다. 오늘날 노래는 점차 젊은 사람들의 것으로 바뀌고 있다. 젊은 가수가 젊은 사람들을 위해 부르니 노래도 점차 젊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너’가 ‘그대’와 ‘당신’을 밀어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림 1〉 제목에서의 2인칭



〈그림 2〉 가사에서의 2인칭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대명사 ‘나’와 ‘너’의 존재는 결국 대중가요가 1인칭이 2인칭에게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따라서 대중가요는 ‘나의 노래’를 보다 확장시켜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사랑노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두 노래가 확인시켜 준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듣고 싶은 말
너 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너 나 좋아해
장현 작사, 장덕 노래, 〈너 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1985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 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나에게 넌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송봉주 작사, 자전거 탄 풍경 노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2001

4. 수사

숫자를 헤아리는 데 쓰는 수사는 대중가요 가사에 많이 등장할 이유가 없지만 빈도 순위를 보면 상식에 부합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모든 수는 ‘일’ 또는 ‘하나’로부터 시작되니 ‘일’ 또는 ‘하나’가 가장 많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가요 가사에서는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 둘, 천, 백, 열’ 순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말뭉치에서는 ‘만, 백, 천, 억’순으로 나오다가 다섯 번째에 ‘하나’가 나온다. 노랫말에서의 숫자는 보통 사랑의 대상 또는 횟수를 나타내지만 현실에서의 숫자는 대개 돈이다. 따라서 노랫말에서의 숫자는 작을수록 좋고 현실에서의 숫자는 클수록 좋다. 한국의 화폐 단위에서 ‘만’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말뭉치에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순위	제목	가사	말뭉치
1	하나	하나	만
2	둘	둘	백
3	천	오	천
4	백	천	억
5	열	열	하나

〈표 4〉 수사의 빈도 순위

대중가요 가사에서 ‘하나’가 ‘사랑’과 함께 쓰이면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주체와 객체 모두 ‘하나’로 표현된다. ‘하나의 사랑’ 또는 ‘단 하나의 사랑’으로 표현되다가 헤어진 후 다른 사랑을 하게 되더라도 ‘또 하나의 사랑’이 된다.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는 관계일지라도 사랑에 빠지게 됐을 때 서로에게 ‘단 하나’이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다. 다음 노래의 ‘혼자’는 ‘하나’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 혼자만이 그대를 알고 싶소
 나 혼자만이 그대를 갖고 싶소
 나 혼자만이 그대를 사랑하여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소
 나 혼자만을 그대여 생각해 주
 나 혼자만을 그대여 사랑해 주
 나 혼자만을 그대는 믿어주고
 영원히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

손석우 작사, 송민도 노래, 〈나 하나의 사랑〉, 1955

‘하나’가 ‘술’과 함께 쓰일 때는 거의 대부분 ‘한 잔’으로 나타난다. 대중가요 가사 전체에서 ‘한 잔’은 1,200번 가까이 나온다. 노래 가사에 술이 자주 등장하지만 그에 대한 경계도 잊지 않고 있는 듯한 표현이

바로 ‘한잔’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정철의 시가에서도 꽃가지를 꺾어 잔수를 세며 무진 마시지만 ‘한 잔 먹세 그려 또 한 잔 먹세 그려’로 ‘한잔’을 강조하고 있다.

마시면 취하고, 취하면 즐거워지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는 술, 그것이 적당하면 가사가 되지만 지나치면 주사가 되는 것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다.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있어도 한 잔만 마시는 사람은 드문데 다음의 노래에서처럼 늘 ‘한 잔’으로 나온다.

한 눈 크게 뜨고 바라보면은
반쯤 찬 술잔 위에 어리는 얼굴
마시자 한 잔의 추억
마시자 한 잔의 술
마시자 마셔 버리자

이장희 작사, 이장희 노래, 〈한 잔의 추억〉, 1974

5. 동사

동사의 빈도가 보여주는 양상도 명사와 비슷하다. 동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동사가 ‘하다’인데 대중가요의 제목에서는 ‘사랑’이 붙은 ‘사랑하다’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가사에서는 ‘하다’ 다음으로 ‘사랑하다’가 나타나는데 말뚱치에서는 139위로서 순위가 매우 낮은 편이다. 대중가요 가사에서는 사랑이 넘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물론 현실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 대중가요 가사에서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소망을 담은 것이기도 하다.

순위	제목	가사	말뭉치
1	사랑하다	하다	하다
2	가다	사랑하다	되다
3	하다	보다	보다
4	오다	되다	대하다
5	되다	가다	위하다
6	보다	알다	말하다
7	모르다	모르다	받다
8	알다	잇다	가다
9	울다	오다	알다
10	살다	살다	오다

〈표 5〉 동사의 빈도 순위

‘사랑하다’ 외에 높은 빈도 순위를 보이는 동사들은 대부분 기초적인 동사들이다. 그런데 ‘모르다’, ‘울다’, ‘잇다’ 등은 말뭉치와 비교해서도 특이하지만 의미 면에서도 다소 의외다. 이러한 동사들 또한 ‘사랑’과 관련이 있다. 자신의 사랑을 몰라주는 상대방 때문에 ‘모르다’가 자주 등장하게 된다.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이별의 아픔 때문에 울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잇게 되니 ‘울다’와 ‘잇다’가 또한 자주 나오게 된다.⁵⁾ 명사 ‘사랑’은 물론 동사 ‘사랑하다’와 그 밖의 몇몇 동사 또한 대중가요가 ‘사랑타령’임을 확인시켜 준다.

당신만을 사랑하고 믿어온 이 마음을
정주고 정을 뺏고 가버린 당신은 모르리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뜨거운 이 눈물을
당신은 모르리 진정한 나의 마음을
박춘석 작사, 이미지 노래, 〈당신은 모르리〉, 1980

5) 이러한 경향은 연관어나 공기어(cooccurrence) 분석을 통하여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사랑’이나 ‘사랑하다’에 인접해서 나타나는 단어, 이와 함께 나타나는 단어의 목록에서도 이러한 동사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6. 형용사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나는 형용사의 빈도 또한 말뭉치와 차이가 큰 편이다. ‘있다’와 ‘없다’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말뭉치와 대중가요 가사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말뭉치에서는 그래도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있다’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반면 대중가요 가사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의 ‘없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대중가요 가사 전반의 정서와 관련이 있다. 말뭉치와 달리 대중가요 가사에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많고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많다.

순위	제목	가사	말뭉치
1	없다	없다	있다
2	좋다	있다	없다
3	있다	같다	같다
4	슬프다	좋다	그렇다
5	같다	아프다	크다
6	아프다	그렇다	많다
7	아름답다	이렇다	좋다
8	그렇다	행복하다	어떻다
9	미안하다	힘들다	이리하다
10	그렵다	많다	이렇다

〈표 6〉 형용사의 빈도 순위

대중가요가 ‘사랑타령’이기는 하지만 이 사랑은 ‘기쁜 사랑’이 아닌 ‘슬픈 사랑’일 때가 많다. 사랑을 노래하더라도 ‘사랑이 있을 때’의 기쁨 보다는 ‘사랑이 없을 때’의 슬픔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작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사랑을 즐기느라 노래를 찾지 않다가 사랑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노래를 찾는다. 이 때 듣는 노래는 사랑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것이니 슬픈 사랑 노래가 오히려 위로가 된다. 사랑이 없어 슬프고, 아프고, 힘들다. 그 사랑이 그렇고,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러한 슬픈 사랑 노래를 듣고 부르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한국의 대중가요에 나타난 정서, 나아가 한국인의 정서를 ‘恨’으로 단순화시켜 말하기도 한다.⁶⁾ 대중가요는 물론 문학 작품 전반에 흐르는 정서 때문에 이러한 단순화가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대중가요에는 맞지 않는다. 슬프고 우울한 노래들이 꽤 되는데 그것을 ‘한’으로 대표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모든 노래가 그렇지는 않지만 ‘한’보다 ‘청승’이 더 잘 어울리는 노래가 많다.⁷⁾

요즘에 만들어지는 노래 중에도 여전히 청승맞은 노래가 있기는 하지만 즐겁고 발랄한 것이 더 많다. 이런 노래의 정서는 ‘흥’으로 표현해도 되고 ‘신바람’이라 할 때의 ‘신’도 괜찮다. 요즘 노래처럼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노래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정서는 역시 축 쳐진다. 이는 대중가요가 전반적으로 ‘청승’의 정서를 담고 있다는 것의 증거이기도 하다. 다음에 제시되는 노래 정도는 왜야 ‘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밑에 제시되는 노래는 슬프고 우울한 정서가 깔려있

6) ‘한’은 한때 대중가요는 물론 우리의 정서 저변에 깔려있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는 6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유행하던 담론 속에서 만들어진 정서일 가능성이 크다. ‘한’ 하나만으로 우리의 정서를 모두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 80년대 후반부터는 이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학계 밖에서는 여전히 ‘한’을 우리의 주된 정서로 언급되고 있다.

7) ‘청승’은 사전에서 ‘궁상스럽고 처량하여 보기에 언짢은 태도나 행동’으로 풀이되는데 한자어일 것으로 보이나 한자 정보가 없어 고유어로 분류된다. 이 글에서는 이보다 가벼운 의미로 쓴다. ‘한’을 대체할 만한 정서로서의 ‘청승’은 시 연구자와의 개인적 대화속에서 나온 것인데 출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한’이 만들어진 정서였듯이 ‘청승’ 또한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곡을 ‘청승’으로 설명하려고 무리하지만 않는다면 상당수의 곡에 적용될 수 있다.

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그친다.

불러 봐도 울어 봐도 못 오실 어머니를
원통해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앞드려 뱉니다

김영일 작사, 진방남 노래, 〈불효자는 읍니다〉, 1940

바람이 불어 꽃이 떨어져도
그대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내가 눈감고 강물이 되면
그대의 꽃잎도 띄울게
나의 별들도 가을로 사라져
그대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내가 눈감고 바람이 되면
그대의 별들도 띄울게
이 생명 이제 저물어요
언제까지 그대를 생각해요
노을 진 구름과 언덕으로
나를 데려가 줘요

이영훈 작사, 이문세 노래, 〈시를 위한 시〉, 1988

7. 관형사와 부사

관형사는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쓸 수 있는 말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서 대중가요 가사와 말뭉치가 크게 차이는 안 난다. 단지 순위 내에서의 변동만 조금 있을 뿐이다. 관형사 ‘이’, ‘그’는 특성상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제목에서는 ‘이’가 한 단계 뒤로 밀려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대중가요 가사에서

관형사가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관형사가 문장에서의 기능이 그리 크지 않음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관형사가 체언을 수식해 체언에 다양한 의미를 더해줄 수는 있지만 문장 전체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문장 의미의 근간을 이루지도 않기 때문이다.

순위	제목	가사	말뭉치
1	그	그	그
2	한	이	이
3	이	한	한
4	두	모든	두
5	그런	두	다른

〈표 7〉 관형사의 빈도 순위

관형사에 비해 부사는 대중가요 가사와 말뭉치가 다소 차이를 보인다. 대중가요 가사에서는 ‘다시’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지만 말뭉치에서는 ‘또’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말뭉치에서는 순위권에 들지 않는 ‘왜’와 ‘너무’가 대중가요 가사에서는 많이 나타난다. 반면에 말뭉치에서 높은 순위를 보이는 ‘함께’와 ‘가장’은 대중가요 가사에서는 순위가 뒤로 밀린다.

순위	제목	가사	말뭉치
1	다시	다시	또
2	왜	더	더
3	잘	다	다시
4	안	또	함께
5	더	너무	가장

〈표 8〉 부사의 빈도 순위

대중가요 가사와 말뭉치에서 두루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다시’와 ‘또’는 의미상 별로 차이가 없다. 대중가요 가사에서 ‘또’보다 ‘다시’가 더 선호되지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가사에서는 ‘또다시’와 같이 아예 둘을 붙여서 쓰는 경우도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 ‘다시’나 ‘또’ 모두 대중가요 가사에서는 이별 후에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수사에서 ‘하나’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지만 사랑이 지나간 후 다른 사랑을 하고 싶을 때 ‘또 하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은 다음 노래에 잘 표현되어 있다.

멀리 떠난 그대를 기다리는 이 마음
 다정했던 젊은 날 사랑이여 또 다시 한 번
 흘러가는 강물이 바다에서 만나듯
 물결 위의 두 마음 사랑이여 다시 한 번

이중희 작사, 패티김 노래, 〈사랑이여 다시 한 번〉, 1986

제목에서 ‘왜’가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의문형의 제목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가 들어간 대부분의 의문이 물음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책망이 목적인 경우가 많다. 〈왜 몰라 주나요〉 이부풍 작사, 박단마 노래, 1939), 〈왜 몰랐을까〉(장옥조 작사, 장옥조 노래, 1980), 〈왜 돌아보오〉(윤복희 작사, 윤복희 노래, 1986)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너무’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에 대한 원망을 담아 많이 등장한다. ‘왜’나 ‘너무’ 또한 ‘사랑’과 관련을 짓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된다. 다음의 두 노래를 보아도 그러하다.

못 잊게 생각나서
 피고 지던 술한 나날
 구슬처럼 고인 눈물
 님 따라 발끝 따라

온 밤을 온 밤을 적시었소
그것을 왜 모르시나 그것도 왜 모르시나
김수철 작사, 김수철 노래, 〈왜 모르시나〉, 1984

마지막 한마디 그 말은
나를 사랑한다고
돌아올 당신은 아니지만
진실을 말해 줘요
떠날 땐 말 없이 떠나가세요
날 울리지 말아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윤향기 작사, 김수희 노래, 〈너무합니다〉, 1983

8. 감탄사

일상에서 감탄사는 곳곳에서 쓰이는데 글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쓰인다. 이에 반해 대중가요 가사에서는 감탄사가 많이 쓰일 수 있다.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적절한 감탄사는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대중가요 가사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추임새나 후렴구도 있다.⁸⁾ 따라서 감탄사의 사용양상은 말뭉치와 대중가요 양상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8) 감탄사와 관련해서는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해 유행하기 시작한 소위 ‘후크송’에 등장하는 반복적인 어휘에 대해 따로 논할 수도 있다. 후크송에서 반복되는 가사는 시나 노래에 등장하는 후렴구도 관련을 지을 수 있다. 시나 노래에서 일정한 단위의 말미에 놓이는 후렴은 오랜 전통을 가진 것으로서 그저 의미 없는 짧은 소리로 구성되기도 하고, 약간의 의미를 담은 긴 구절로 구성되기도 한다. 후크송을 살펴보면 민요의 전통을 잇는 후렴구가 있는가 하면 의미는 없지만 특별한 느낌을 주는 소리들도 있다. 아예 짧은 후렴구와 반복되는 가사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순위	제목	가사	말뭉치
1	안녕	아	그래
2	그래	그래	아니
3	아	라라라	아
4	야	마	뭐
5	여보	안녕	네
6	뭐	라라	응
7	랄랄라	아니	야
8	아니	아아	자
9	라라라	오오	글쎄
10	아니야	랄랄라	어

〈표 9〉 감탄사의 빈도 순위

일상의 대화에서 인사말로 많이 쓰이는 ‘안녕’은 소설이나 동화에는 나타날 수 있으나 공식적인 글에 등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중가요의 제목에서는 ‘안녕’이 114회나 등장해서 두 번째 순위인 ‘그래’의 세 배 가량 된다. 가사에서는 수없이 많은 ‘아’, ‘라라라’, ‘랄랄라’ 등이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한 추임새는 노랫말의 특징이기도 하다. 김창완은 ‘안녕’을 제목으로 한 노래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감탄사를 제목으로 한 노래 중 압권은 역시 이 노래가 아닐 수 없다.

어머나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묻지 말아요
 더 이상 내게 원하시면 안 돼요

윤명선 작사, 장윤정 노래, 〈어머나〉, 2004

9. 종결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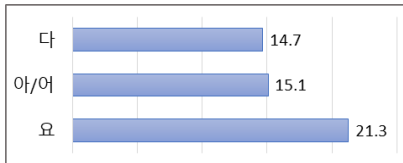
정상적인 한국어 문장은 보통 종결어미로 끝을 맺는다. 이때의 어미는 문장을 끝맺음하는 단순한 역할뿐만 아니라 문장이 어떤 종류의 문장인지, 듣는 사람은 어느 정도로 높일 것인지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기다려 줘’를 예로 들면 간곡한 명령을 하는 문장이지만 굳이 높일 필요가 없는 대상임을 알려 준다. ‘기다려 주오, 기다려 즐래?, 기다려 즐겨?’ 등과 비교해 보면 말끝의 다양한 변화와 그 쓰임을 알 수 있다. 제목과 달리 가사는 문장의 형식을 갖추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종결어미로 끝을 맺어야 하는데 대중가요 가사의 종결어미는 독특한 양상을 보여준다.⁹⁾

군대에서 쓰이는 말처럼 공식적인 말투는 ‘다나까’로 표현된다. 말끝이 ‘다’와 ‘까’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처럼 ‘다’와 ‘까’는 딱딱한 말투, 공식적인 말투를 대표한다. 이러한 말투와 대척점에 놓인 말투는 ‘요’로 끝나는 말투다. ‘요’는 본래 여자들의 말투이기 때문에 군대는 물론 공식적인 자리에서 남자들은 쓰면 안 되는 것이라 여겨졌다. 그러나 어느새 ‘요’가 세력을 확장해 일상적인 우리의 말끝은 ‘해체’와 ‘해요체’ 둘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와 함께 ‘합쇼, 하오, 하계’ 등은 점차 쓰이지 않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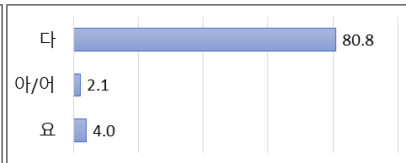
대중가요 가사의 말끝이 일상에서 쓰는 말의 말끝과 다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통계를 내어보면 상상하던 것 이상의 결과를 보인다.

9) 대중가요 가사에서 종결어미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종결어미의 분석을 위해서는 대중가요 가사를 정제한 후 형태소 분석기로 분석을 해야 하는데 대중가요 가사는 구두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장이 완전한 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이러한 면까지 고려해 보다 정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중가요 가사를 대상으로 문장구조까지 명확하게 분석하고 구두점까지 보태야 가능하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말뭉치에서 ‘다’의 쓰임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인데 이는 말뭉치 자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말뭉치는 일상의 갖가지 자료를 다양하게 모아 놓은 것인데 문어로 된 자료가 많을 수밖에 없다. 노랫말은 결국 가락에 실은 말이기 때문에 구어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따라서 양자 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렇더라도 노랫말에서는 ‘다’로 끝나는 딱딱한 말끝은 적게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신 반말체인 ‘해체’와 높임말체인 ‘해요’체가 널리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 가사의 종결어미 비율



〈그림 4〉 말뭉치의 종결어미 비율

문장 끝의 ‘요’는 제목과 가사 모두에서 매우 높은 쓰임새를 보여준다. 제목에서는 22.6%, 가사에서는 21.3%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요’가 높임을 나타내되 여러 가지 기능을 모두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랑해요’란 말은 그저 사실을 서술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물어보는 말, 명령하는 말, 권하는 말 등이 될 수도 있다. 즉 상대가 누구이든 적당히 높이면서 하고자 하는 말을 두루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요’이니 그 쓰임새가 많을 수밖에 없다. ‘해요’체가 듣는 이를 높이고자 할 때 쓰는 말이라면 ‘해체’는 굳이 높이지 않아도 될 때 쓰는 말이다.

‘요’로 끝나는 것과 ‘아/어’로 끝나는 시대에 따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얻게 된다. 1990년대 이후 ‘아/어’의 등장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 다시 낮아진다. 시대별로 살펴보면 ‘요’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이는 높여야 할 상황에서 두루 ‘요’를 사

용한 결과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를 굳이 높이지 않는 ‘아/어’가 ‘요’를 압도하기 시작한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노래를 하면서 상대를 굳이 높이지 않게 되었다는 해석이 그 하나가 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높임법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버르장머리 없는 노랫말’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지나치게 편협한 것일 수 있다. 더 정확한 이유는 존댓말에 구속을 받지 않는 세대들의 노래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는 데서 찾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굳이 ‘해요’하지 않고 ‘해’만을 하더라도 서로 통하는 세대의 말투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가요계의 큰 변화를 주도한 서태지와 아이들의 두 노래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롭다. 〈난 알아요〉에서는 제목에서는 ‘해요’가 쓰였지만 가사에서는 ‘해’가 혼용된다. 그러나 〈교실 이데아〉의 가사는 철저하게 ‘해’를 쓰고 있다.

난 정말 그대 그대만을 좋아했어
나에게 이런 슬픔 안겨 주는 그대여
제발 이별만은 말 하지 말아요
나에겐 오직 그대만이 전부였잖아

서태지 작사,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 〈난 알아요〉, 1992

됐어 됐어 이제 됐어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그걸로 족해 족해 이젠 족해 족해
내 사투로 내가 늘어놓을래

서태지 작사,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 〈교실 이데아〉,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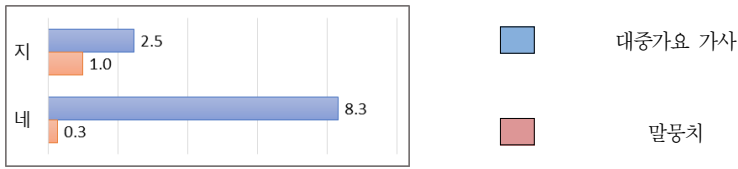
노래의 가사든 영화의 대사든 현실의 말과 조금은 거리감을 유지해야 느낌이 산다. 물론 가사와 대사에서 일상의 말을 닮아가려는 시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말들이 일상의 말과 똑같다면 가슴을 울리거나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을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다. 그래서 노랫말의 어투, 대사의 어투가 따로 있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노래와 극의 상황에서 받아들인다. 문장의 성격을 결정짓는 문장의 끝도 마찬가지다. ‘통촉하여 주옵소서.’라는 대사가 나오면 ‘통촉’의 뜻은 몰라도, ‘주옵소서’가 도대체 어느 시대의 말투인지 묻지도 않고 그저 사극으로 받아들인다.

대중가요의 가사에 나오는 독특한 종결어미는 ‘-지’와 ‘-네’를 들 수 있다. 이 종결어미의 의미와 용법은 다음의 시에서 잘 드러난다.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김남조, 〈겨울 바다〉

일상의 대화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지’와 ‘-네’가 쓰이지 않는다. 이때의 ‘-지’와 ‘-네’는 회상을 하며 독백을 하는 것을 표현한 듯이 보인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저 ‘-다’ 또는 ‘-어’를 쓴다. ‘보았다, 없었다’ 혹은 ‘보았어, 없었어’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 대중가요의 가사는 시와 유사성이 꽤 있는데 대중가요의 가사에서 ‘-지’와 ‘-네’의 이와 같은 쓰임이 많이 나타난다. 대중가요의 가사와 말뭉치에서의 종결어미 중 ‘-지’와 ‘-네’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종결어미 ‘-지’와 ‘-네’의 비율 단위:%

이러한 결과 역시 말뭉치의 문어적 특성을 감안해야 하는데 그렇더라도 대중가요 가사에서 ‘-지’와 ‘-네’의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음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네’의 사용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와 ‘-네’의 용법을 자세히 따지자면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노랫말에서의 용법을 다소 거칠게 요약하자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되 약간의 거리를 두고 남의 이야기를 하듯, 한 다리 건너서 하듯 할 때 많이 사용된다. 말 그대로 회상을 하는 다음 노래에서의 말끝을 봐도 그렇다. 그 말끝을 통상적인 말끝으로 바꿔 불러보면 금세 느낄 수 있다. 노래가 갑자기 일기가 되어 버린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길을 걸었다.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다.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진다.

김창훈 작사, 산울림 노래, 〈회상〉, 1982

‘다’로 끝내면 더 객관적인 서술이 가능할 듯도 하다. 그러나 그래서 듣는 이가 공감하지 못한다. 적당히 남의 이야기를 하는 듯하면서도 부르는 이와 듣는 이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다시 따라 부르거나 남에게 들려줄 수 있다. 이야기가 어떻게 가사로 바뀌는지, 그리고 이때 ‘-지’와 ‘-네’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다.

사랑이 또 다시 내 곁에서 떠나간다. 마침내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이번엔 심각했다. 너무 많은 걸 바라지는 않았나, 너무 큰 욕심을 부렸나 생각해 본다. 정말 잘해줬는데 너무나 허무하다.

사랑이 떠나가네 또 다시 내 곁에서
이번엔 심각했지 마침내 사랑이었어
너무 많은 걸 바라지는 않았나
너무 큰 욕심 부렸나
너무나 허무해 정말 잘해줬는데

한경혜 작사, 김건모 노래, 〈사랑이 떠나가네〉, 1997

10. 맺는말

이상에서 한국 현대 대중가요에 나타난 어휘의 빈도들을 대중가요 가사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중가요 가사가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말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대중가요를 듣고 부른다는 점에서 대중가요가 한국인의 정서와 삶의 모습을 잘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6,000여 곡 전체를 대상으로 모든 어휘를 품사별로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의 경향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의 현대 대중가요를 분석한 결과 가장 핵심적인 어휘는 역시 ‘사랑’이다. ‘사랑’은 그저 명사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제목과 가사 전체를 지배하며 이

와 관련된 어휘들을 이끌고 있다.

한국인들은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사랑 노래’를 듣고 부른다. 누구나 노래 속에서 ‘사랑하고’ 싶어하지만 사랑이 ‘없어’ 상태에서 사랑 노래를 찾는다. ‘하나’의 사랑을 원하지만 ‘이별’이 다가오고 그 이별 때문에 ‘눈물’ 짓는 상황이 된다. 그 상황에서 사랑 노래를 들으며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길 원한다. 일상의 삶에서도 사랑이 있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노래 속에서는 이 사랑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즐긴다. 그 결과 사용하는 어휘뿐만 아니라 말투까지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한국의 현대 대중가요가 한국어의 중요한 자료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정서와 삶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이 자료를 바탕으로 얻은 결론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지난 100여 년 간 만들어져 대중의 사랑을 받은 노래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분석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의 현대 대중가요는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듯이 미래에도 여전히 ‘사랑타령’ 일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한성우. 2018. 『노래의 언어』, 어크로스.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Frequently Used Words in Korean Popular Songs

Han, Sungwoo

(Inha University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is paper analyzes the lyrics of Korean popular songs and observe the characteristics of specific words that appear frequently in each category of parts of speech. 26 000 songs that are well-known were chosen and categorized, utilizing the morpheme analyzer which were compared with corpus in order to assess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lyrics in Korean popular music. In terms of nouns, it was seen that “Love” appeared the most frequently, followed by “Break-up” and “Tear”. As ‘Love’ is only ranked 104th in the general corpus, the finding supports the idea that most of Korean popular songs are ‘Love songs’. Pronouns, ‘I’ and ‘You’ appeared the most, which proposes the idea that not only most songs are ‘Love songs’ but ‘Love songs from me (‘I’) to you’. Verb, ‘Love’ appeared the most, while ‘Gone’ and ‘Sad’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adjectives. From this, it can be concluded that ‘Love’ in songs is often ‘Sad Love’. Additionally, compared to the frequency of ‘-다(da)’ ending in general corpus, ‘-아/어(-a/eo)’ and ‘-요(-yo)’ endings are mainly used in lyrics. This is due to the spoken nature of song lyrics.

Keywords: Popular Music, Lyrics, Corpus, Part of Speech, Love

논문 투고일: 2020년 10월 29일

논문 심사 완료일: 2020년 11월 18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20년 11월 20일